논어 11편 선진 6장 · 원문·풀이

季康子問：「弟子孰爲好學？」孔子對曰：「有顏回者好學，不幸短命死矣。今也則亡。」

독음 · 계강자문 제자숙위호학 공자대왈 유안회자호학 불행단명사의 금야즉무

쉬운 풀이(요약) · 안회가 배움을 좋아했지만 일찍 죽었고, 이제 그만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季 끝 계 계 / 康 편안할 강 강 / 子 아들 자 / 問 물을 문 문

弟 아우 제 / 孰 누구 숙 숙 / 爲 할 위 / 好 좋을 호

學 배울 학 / 孔 구멍 공 공 / 對 마주볼 대 대 / 曰 가로 왈

有 있을 유 / 顏 얼굴 안 / 回 돌 회 회 / 者 놈 자

不 아닐 불 / 幸 다행할 행 행 / 短 짧을 단 단 / 命 목숨 명 명

死 죽을 사 사 / 矣 어조사 의 / 今 이제 금 금 / 也 어조사 야

則 곧 즉 / 亡 망할 망 망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